

진화하는 대입제도

곽병선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부가 대입제도 큰 그림을 내놓았다. 보는 이에 따라 해석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착수에 들어간 제도를 정착시키지도 않은 채 또 바꾸느냐의 비판적 시각이 있다. 예컨대, 수준별 수능, 국가영어시험제도 (NEAT)의 후퇴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다소 기존의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대입제도 개선안에 근본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수준별 수능시험, 국가영어능력시험 변경은 시험방법상의 기술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지, 평소 제대로 학력을 닦고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방법상의 변화 때문에 진학상의 유불리가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사를 수능에서 별도로 반영하기로 한 것은 평가기준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 변화는 아니면서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대입지망생들과 대입행정 담당자들에게 번거로움이 될 수 있는 방법상의 변화는 왜 시도했나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 정당성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교육부의 대입개선안을 옹호하면서 그 옹호하는 이유를 이 지면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평소 우리의 인재선발문화가 공정성, 객관성 위주로 치우쳐 근성과 끈기가 넘치는 의지의 인재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한계라는 것이 학교 공부를 시험준비 교육인 것으로 왜곡하는 수단적 교육관을 낳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득점 점수기제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한국교육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과학수업에 실험이 실종되고, 인문/사회과 수업에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토론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학문과 직업의 세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학습경험은 별로 없다. PISA, TIMSS 등 국제 학력평가에서 수학, 과학이 1, 2위를 다투지만, 그 교과를 선호하는 순위는 세계 최하위이다. 그렇게 길러진 우리의 인재들이 그 분야가 좋아서 뛰어들든 다른 나라의 상대들과의 세계 무대 경쟁에서 그 결과는 뻔하다. 최근 2-3년 주기로 일본 출신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타고 있고, 그 수는 16명에 이르고 있다. 하버드의 두 웨이밍 교수가 말했다. “동양이 훌륭한 문화를 태동시켜놓고서도, 서양에 밀린 주요 원인은 십 수 세기 동안 과거제도로 나라인재를 선발해온 데 있다고.” 왜냐하면, 시험은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수능과 같은 객관식 시험 점수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한, 고교에서 근성을 키우는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인지는 실험실에 들어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는 지도 교사만이 잘 알 수 있다. 대학 경영진들은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뽑지 말고, 대입 지망생이 어떤 교과에 근성과 적성 있는지를 언급한 고교 교사의 기록(학생부)을 가장 신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 나라 고교 교실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타보지도 못한 과학 노벨상에서 일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것이 국력차가 아닌가?

이번 입시개선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대목은 수준별 수능제도 후퇴나 NEAT의 약화가 아니다. 고교 학생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정상화로 가는 진화의 과정을 향한 하나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점수가 아니고, 인격, 근성, 꿈, 끼, 의지 등 대입 지망생 개개인의 전인적 사람됨이라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이 제각각 독특한 고교졸업자격 또는 국가시험제도로 대학 신입생들을 선발 하지만, 그 시험제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교과정에서의 누적된 기록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은 지망생의 실력을 모두 쏟아 놓도록 종합적으로 치러진다. 미국 대학들의 경우, 가장 중시하는 전형 서류는 학생부이다. 학생의 인종, 문화 등 가정배경,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만점 1,600점 SAT에서 1,500점대 성적을 가진 지망생이 탈락하고, 1,000점 이하 지망생을 합격시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대학입시제도이다. 대입제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대입지망생의 점수가 아니라, 적성, 근성, 인격이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부를 존중해주는 풍토로 우리의 입시문화를 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교 교실이 수능참고서 연습에 매몰되지 않고, 실험, 토론, 현장견학, 봉사 등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연에 충실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문학사·교육학석사를 미국 Marquette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위원, 국무총리실 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교육분과위원,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 한태평양협의회(PCO) 의장, 경인여대총장, 한국교육학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선임위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위원, 세계교육협회한국회장, 3개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저서로는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논리가 보인다』,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공저), 『21세기 동아시아 협력』(공저) 등이 있다. 국민훈장 목련장 등 다수의 상훈이 있다.